알칼리망간건전지 반덤핑관세 연장 재심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19일 싱가포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사 결정은 알칼리망간건전지를 생산하는 로켓트전기와 백셀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의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관세율 24.97%로 2003년 12월3일부터 부과돼 2006년 12월2일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0>